



LEE SUN MEE

ARTWORK FORTFOLIO

이선미

LEE SUN MEE

원광대학교 순수미술학부 한국화과 졸업 (2015)
2015-2016 광주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시 입주작가

SOLO EXHIBITION

- 2023 광주청년창작지원 '이선미 개인전' [무엇이 묻혀있는지도 모른 채] 展 (아크갤러리, 광주)
- 2016 레지던시 청년작가지원전시 'Selection- 선택가능 한 것들[의 집합]' 展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광주)
- 2016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선정 개인전 '틀에 박힌 반복' 展 (광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1.2관)

GROUP EXHIBITION

- 2023 신세계갤러리 신년 기획전시 'Jumping Rabbit : 뛰는 토끼 위에 나는 토끼' 展 (신세계갤러리, 광주)
- 2022 '2022 계림보부상:금수예술장' (계림동 금수장호텔, 광주)
- 2017 'art&home 예술이 가득한 집' 기획단체전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 2017 예술공간[서:로]기획전 히치하이킹-drawing 展 (예술공간[서:로], 서울)
- 2017 신년기획전 "어둠속에서 만물의 영혼을 일깨우다" 展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82 10 9192 0460
sunmeeeee@naver.com
@ sun_m_e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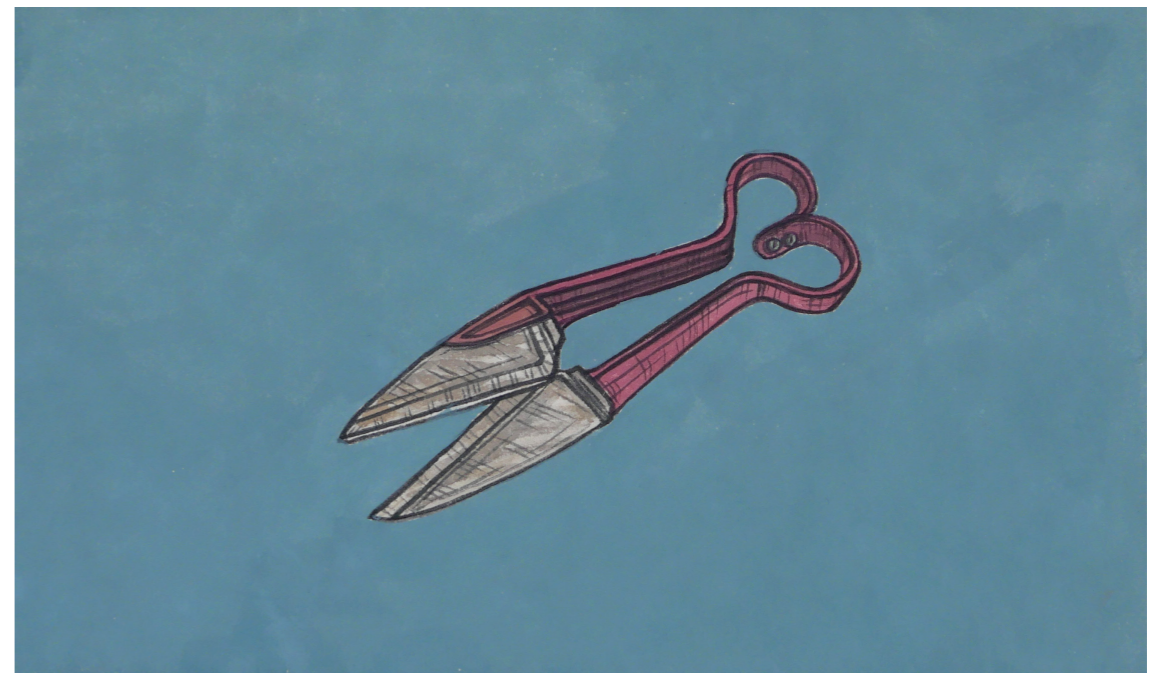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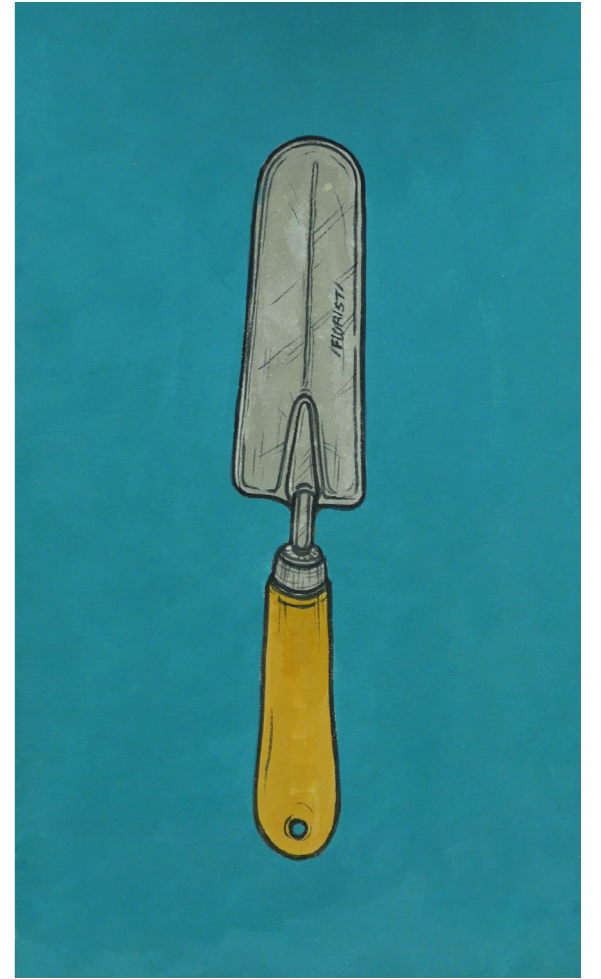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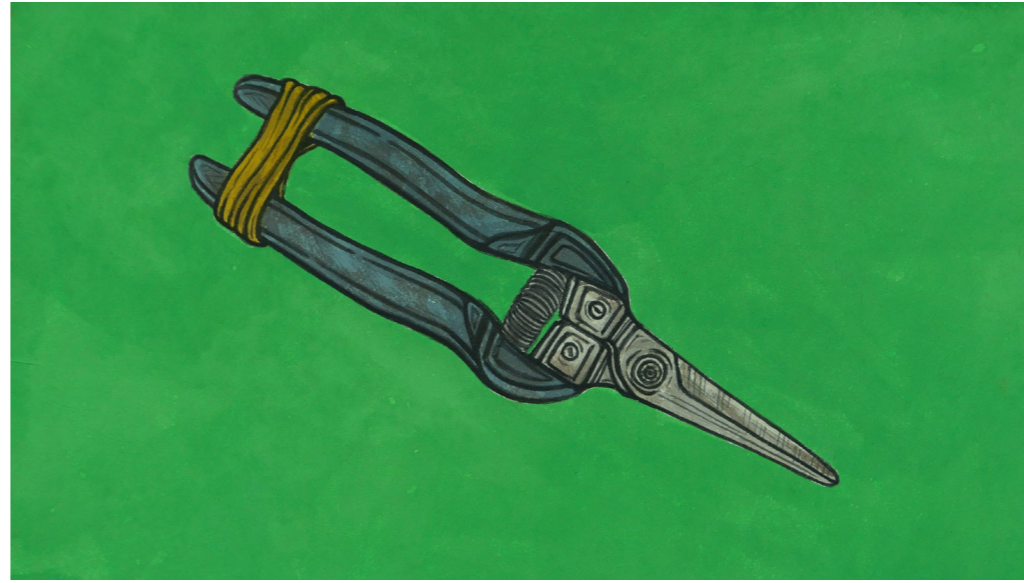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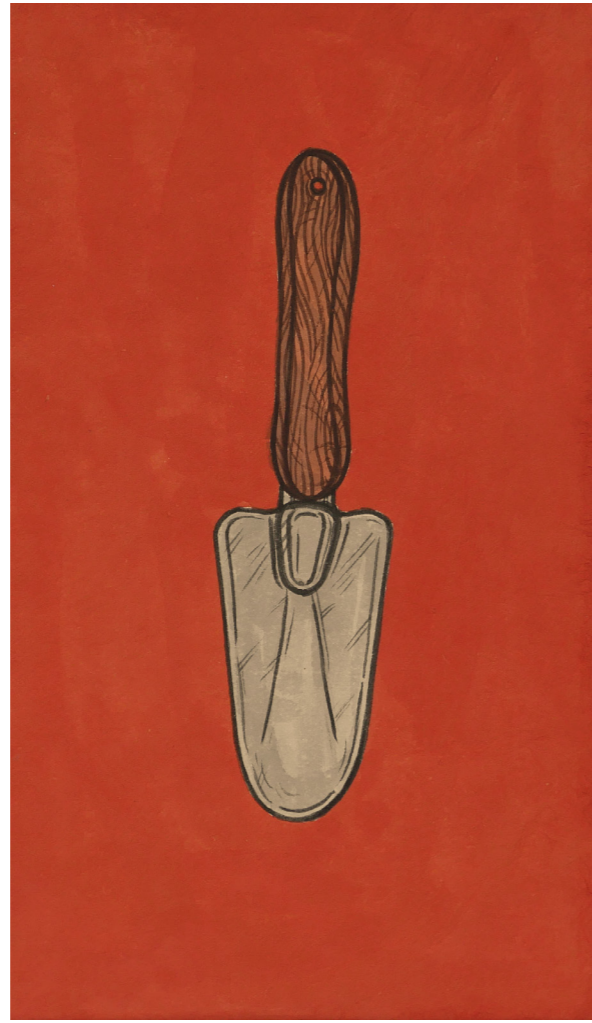
〈 무엇이 묻혀있는지도 모른 채 〉

Without knowing What's buried

LEE SUN MEE

주변을 둘러보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일궈낸 인위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아름답거나, 희귀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준다는 명목 아래 가볍게 소비되는 자연물들은 유행이란 흐름 속에 휩싸여 일렁이기도 하고, 허상 속에 반짝이며 존재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을 따라 관찰하다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존재가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지는 미시감[未視感]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기도 작가로서의 본능을 자극하기도 한다.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풍경들, 플랜테리어 알고리즘의 희귀 식물 이미지를 스크롤하며 장바구니에 담거나, 위시리스트에 찜 해놓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불현듯,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의문을 재료 삼아 작업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일궈낸 풍경들을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뒤에 감춰지고 버려진 본질의 존재들을 재조명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Gardenning Kit | 2023 | 장지에 채색 |





[악취의 근원] | [그저 운이 나빴을 뿐] | 2023

실제로 맞닥트린 불쾌한 광경으로부터 시작된 두 작품은 쥐를 잡기 위해 설치한 쥐덫에 의도치 않게 잡혀 불운한 죽음을 맞이한 존재로부터 시작된다. 끈적이는 덩 위에 싸늘하게 식어가는 생명의 온기와 처절한 몸부림을 대변하듯 끈끈하게 뒤엉킨 잔해의 깃털들을 직관하게 된 찰나의 순간, 마음속엔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고 체념과 부질없는 애도의 감정이 휘몰아쳤다.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불필요한 존재.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의 이름으로 생명의 생과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일까? 내가 느낀 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감각들을 직시하고 완전한 형태의 이미지로 표출해 냈을 때 나는 비로소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보는形形色색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파생된 불편한 감각의 지점들이 내 작업의 근원이자 원동력임을 깨닫게 된다. [악취의 근원] |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은 어느 날의 불쾌한 경험이 준 불쾌한 감정 속에서 파생된 파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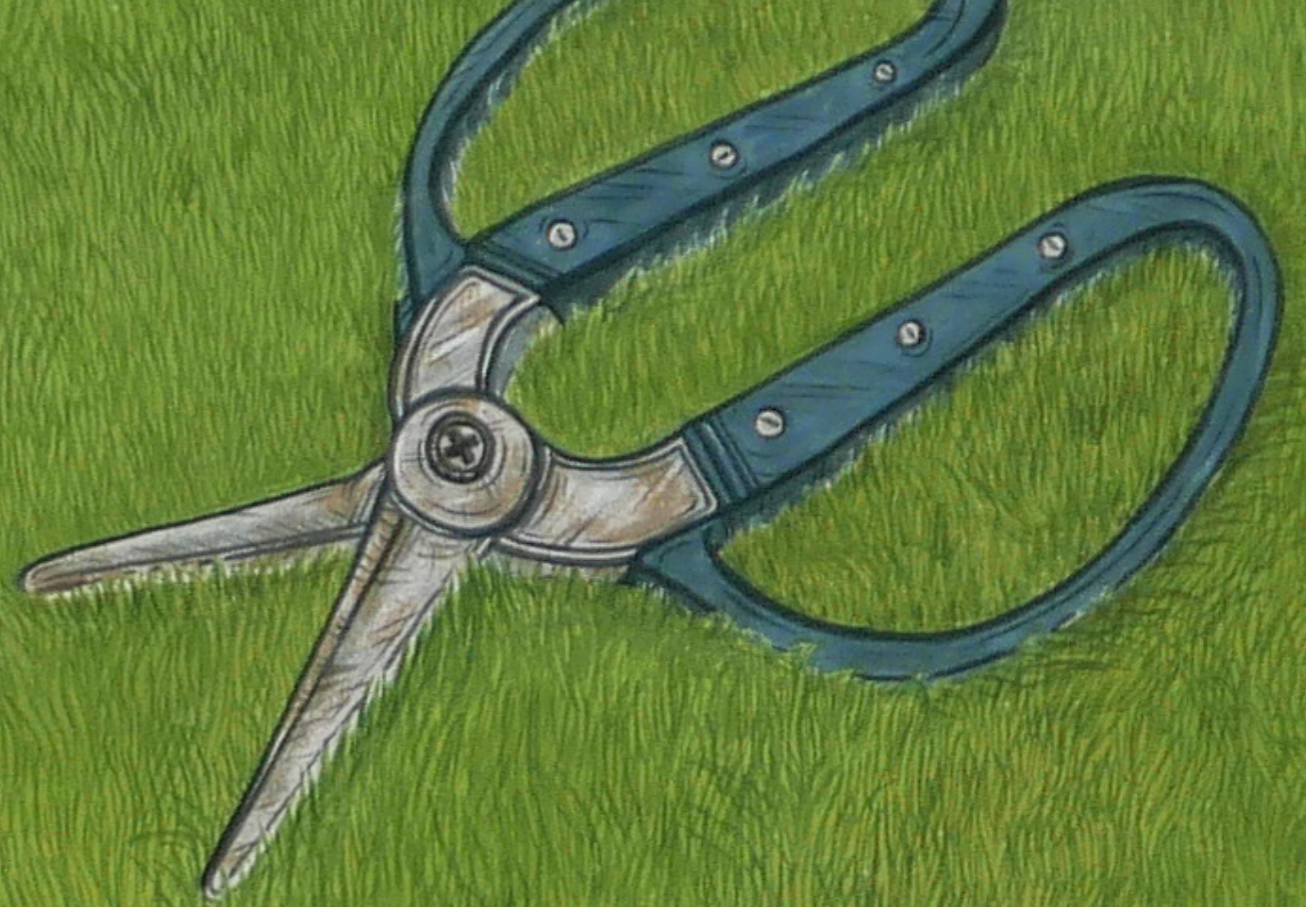
아름다움 뒤에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풍경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자 한다.



풍요 속의 빈곤 | 2023 | 장지에 채색 | 90.9 X 60.6cm



달팽이 출몰구역 | 2023 | 장지에 채색 | 90.9 X 60.6cm





끈끈하다 못해 끈적이는 땅 | 2023 | 장지에 채색 | 60.6 X 60.6cm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시오] | 2023

담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개인의 고유 영역인 '정원'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낮은 울타리 안으로 배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저마다 상상해보고 탐미[耽美]하는 낯선 감각을 유도한다. 경계선 너머 이웃의 정원을 엿보며 탐하는 행위 속에서 자연이 주는 순수한 아름다움은 감춰진다. 관상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정원을 큰 틀로 잡고 불확실하게 수집된 내면의 이미지를 나만의 관점과 색채로 재구성하여 작업했다.





관심 없는 척 | 2023 | 장지에 채색 | 41.0 X 24.5cm ↗

헐끗헐끗 | 2023 | 장지에 채색 | 41.0 X 24.5cm ↗

관망하는 눈 | 2023 | 장지에 채색 | 27.5 X 19.0cm ⇨





옮겨심기 좋은 날 | 2023 | 장지에 채색 | 90.9 X 60.6cm



보여주기식 정원 가꾸기 | 2023 | 장지에 채색 | 116.8 X 72.7cm



유행이 지났고 건너편 이웃이 따라 샀으므로 | 2023 | 장지에 채색 | 116.8 X 72.7cm



파인애플 키우기가 유행이라길래 | 2023 | 장지에 채색 | 90.9 X 60.6cm



한바탕 벌초를 한 남자 | 2023 | 장지에 채색 | 72.7 X 50.5cm





